

PVC, 중국 반덤핑 조치로 대혼선!

CFR FE Asia 540-560달러로 15달러 상승 ... 미국·유럽은 변화 무

PVC(Polyvinyl Chloride) 가격은 5월12일 중국의 반덤핑 예비판정 발표로 톤당 15달러 상승해 CFR FE Asia 톤당 540-560달러를 형성했다.

중국의 반덤핑 예비판정은 PVC 생산기업들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특히, 32%에서 최고 115% 판정을 받은 일본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.

한국과 일본, 타이완의 PVC 생산기업은 중국의 역수출기업들에게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, 시장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중국의 반덤핑 예비판정 조치가 아시아 PVC 시장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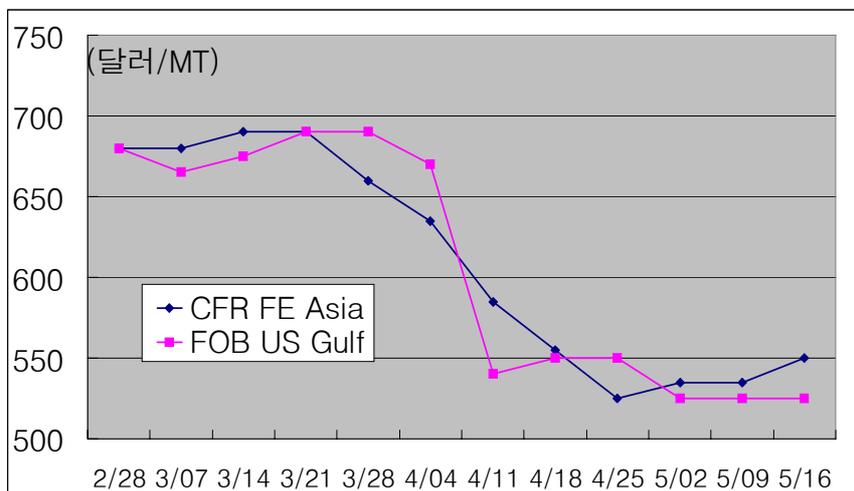
중국의 PVC 역수출기업들은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PVC를 들여오는 중국 수입업자는 세관에 수입관세와 덤핑비율, 그리고 VAT에 해당하는 현금을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PVC 생산기업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.

중국의 반덤핑 예비판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무역거래 구조가 확실히 자리잡을 때까지, 또 PVC 시장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무역업자들이 PVC 판매와 구입을 보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분명치 않다.

중국 내수가격은 Ex-Tank 톤당 6100원으로 수입가격 기준 553달러 수준이다.

타이완의 PVC 생산기업은 적절한 PVC 가격이 CFR China 톤당 570-580달러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, 구매기업은 CFR China 톤당 540달러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.

PVC 가격추이(2003)



한편, 유럽의 PVC 가격은 FOB NWE 톤당 495-520달러, 미국가격은 FOB US Gulf 톤당 500-550달러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. <배연호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5/22>